



김기태 감독

# “좌절 ‘NO’ 희망 ‘GO’... 할때까지 해봐라”



## KIA, 하루 끝맛휴식 후 재소집해 대규모 훈련 엔트리 27인 확정...윤석민 보직은 아직 김기태 “1·2군에 일희일비 말고 최선 다해주길”

“오늘까지 고생 많았다. 해볼 것은 다 해보자.” 시범경기가 끝난 후 하루 휴식을 취했던 KIA 선수들이 24일 챔피언스 필드에 소집됐다. 시범경기 선수단은 물론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던 선수들까지 호출되면서 50명에 가까운 선수가 참가한 대규모의 훈련이 진행됐다. 28일 시즌 개막을 앞두고 코칭스태프는 최종적으로 제출할 27인의 엔트리를 확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은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선수단 앞에 선 김 감독은 겨우내 계속된 훈련과 테스트를 견뎌낸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시즌’을 예고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노리고 시즌을 치르라고 당부했다. 김 감독은 “팀을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 오늘까지 고생 많았다. 엔트리에 들지 못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 기회는 올 것이다. 시즌이 시작되면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해볼 것은 다 해보면서 최선을 다하자”며 “(1군으로) 올라갈 때는 겸손하게, (2군으로) 내려갈 때는 기

죽지 말고,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자. 시즌을 보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기태식 대화와 유머도 빠지지 않았다. 김기태 감독이 “후회는 없느냐? 뭐가 가장 아쉽나?”는 질문을 던졌고 선수들은 “가을부터 아프지 않고 잘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쉽다”는 등의 답을 하며 지난 준비 과정을 돌아봤다. “(개막전 상대인) LG에 강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선수들의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기도 했다. 신인 김명찬과 고졸 2년차 박찬호도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LG전에서 첫 안타를 쳤다”는 박찬호의 설명에 사람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미팅이 진행됐지만 경기장 뒤에서는 고민의 시간이 계속됐다. 선수

단 미팅이 끝난 후 김기태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윤석민의 보직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여기에 부상이라는 악재가 찾아왔다. 지난 22일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kt 외국인 투수 시스코의 공에 맞고 교체됐던 외야수 신종길이 우측 견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6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시즌 초반 신종길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한편 24일 몸을 푼 선수단은 25일 야간경기를 대비해 오후 5시부터 야간훈련을 진행한 다. 26일 휴식 후 27일에는 올 시즌 선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낼 예정이다. 1군 연습경기 일정은 없지만 25·26(이상 경산)일 27·28(이상 함평)일 열리는 삼성과의 2군 연습경기를 통해 컨디션 조절에 나서는 이들도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홈런존서 홈런볼 주으면 시즌권 선물 KIA, 휴대 간편 ‘팬북’ 발간

기아차, 챔피언스 필드에 홈런존... 홈런 선수엔 차량 제공

기아자동차가 2015 타이거뱅크 프로야구 개막전부터 정규시즌 동안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기아 홈런존을 마련한다. 챔피언스 필드 우측 외야 잔디석에 설치되는 기아 홈런존엔 뉴 유 쏘렌토와 신형 K5, 신형 스포티지 등의 차량이 전시되며 관객을 위한 홈런 및 홈런볼 이벤트 등도 함께 열린다. 기아 홈런존으로 바운드 없이 홈런을 친 선수에게는 홈런존에 전시된 차량을 증정하는 ‘홈런 이벤트’가, 또 기아 홈런존으로 날아온 홈런볼을 주운 관중에게는 ‘2016년 챔피언스 필드의 시즌권’을 증정하는 ‘홈런볼 이벤트’각각 준비됐다.



이외에도 5회말 종료 후 경기장을 정비하는 클리닝 타임을 활용해 고객들이 직접 기아차와 레이 미니카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고객 대상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

KIA 타이거즈가 2015시즌 팬북을 발간했다. 이번 팬북은 ‘동행(同行)’을 컨셉으로 했으며 다이어리 사이즈(가로 17cm 세로 23cm)로 제작해 휴대성을 강조했다. 표지에 KIA 선수가 어린이 팬에게 야구공을 건네는 이미지를 담아, 선수단과 구단이 팬을 위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주요선수 페이지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기록은 물론 올 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광판에 표출될 선수 소개 영상도 볼 수 있게 했다. 팬북에는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 김기태 감독의 ‘동행 리더십’ 등이 담겼다.



또 이범호, 양현종, 윤석민 등 주요선수들의 릴레이 인터뷰와 새 외국인 선수들의 각오가 실렸다. 나지완, 심동섭, 임준섭, 한승혁 등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의 유쾌한 화보도 만날 수 있다. 타이거즈 러브펀드를 통한 나눔 활동 이야기와 팬들이 선수에게 직접 쓴 편지 등도 살펴볼 수 있다. 2만부가 발행됐으며 1만원에 판매된다. 구입은 비전코리아(www.vikorea.com)와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 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



# 박태환, 갈길 먼 ‘리우’

## FINA, 자격정지 18개월 징계... 인천 AG 메달 박탈 올림픽 출전 가능하지만 3년간 출전금지 국내 규정 발목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했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

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불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하면서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예초 청문회 결과는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FINA는 이날 4시간여 진행된 청문회가 끝나고 약 3시간 뒤에 결과를 발표했다.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의 선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수영계의 관심이 컸던 만큼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에서 박태환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 약물 투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영연맹 측은 박태환이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점 등을 설명하며 징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징

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박태환은 1년 6개월 징계가 확정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도전하려면 넘어야 할 걸림돌이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로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연합뉴스